

인도발 델타변이 독세에 비상 세계 각국 방역고삐 다시 죄다

영국 봉쇄 전면해제 연기

독일 등 주변국 영국에 빗장

미국 ‘우려 변이’ 지정 내부단속

전파력 높고 항체 회피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델타(인도발) 변이 확산에 각국이 다시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전염력이 기본 바이러스나 변이보다 강력한 데다가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봉쇄해제 연기...주변국은 새 진원 영국 경계=대표적으로 영국은 21일(현지시간)로 잡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시점을 다음 달 19일로 최근 연기했다. 델타 변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해서다. 영국 13~19일 신규 확진자는 6만 3794명으로 그전 7일간보다 33.2%(1만5896명) 증가했다. 11~17일 검사 건수가 616만6000여건

으로 4~10일에 걸췌 1.3%(7만7828건)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검사가 늘어서 확진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 9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각국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다. 독일은 영국을 변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독일 국민이나 영주권자, 이들 직계가족 등만 영국에서 독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백신접종을 마친 여행자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가졌을 때만 영국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했고 이탈리아는 19일부터 영국에서 입국할 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입국 후 5일간 반드시 격리하도록 했다.

◇델타변이 세계지배종 시간문제...항체 회피할라 우려=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슈마스와미탄 박사는 18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상당히 진척되었다”라고 경고했

다. 로셀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이날 미국 ABC방송에서 알파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됐듯 델타 변이가 그 길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델타 변이 감염자는 신규 감염자의 6%에 그치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8월 중순이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일에선 엔스 슈판 보건장관이 “델타 변이가 독일과 유럽대륙 지배종이 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에서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는 경고를 내놔다.

현재 80여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는 인류에게 또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항체를 회피한다는 연구까지 나왔다. 인도 ‘구자라트 생명공학 연구센터’의 연구진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쳐 델타 변이가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접종으로 신체 내 형성된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19일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유권자 62% “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강행하려면 “무관중 경기로”

스가 내각 지지율 34% 저조

도쿄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코로나 19 확산 와중에 대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오전 9시 후쿠시마현 소재 아즈마구장에서 이번 대회의 첫 게임인 소프트볼 경기가 예정돼 있다. 개막식은 7월 23일이지만 첫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림픽은 정확히 한 달 후에 시작한다.

개최국인 일본의 시민들은 여전히 우려 섞인 눈으로 대회를 바라보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9~20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올여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2%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30%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취소·재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62%에 달했다.

지난달 15~16일 조사했을 때는 취소 의견이 43%, 재연기 의견이 40%였다.

이번 조사에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올여름에 개최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더니 53%가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관람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1만명 이하(개회식은 2만명 이하)의 관중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교도통신이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관중 개최 40.3%, 취소 30.8%, 관중수 제한 27.2%의 분포를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인기는 저조한 상황이다. 아사히의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34%로 지난달 기록한 최저 기록(33%)과 별 차이가 없었다.

/연합뉴스

브라질 대통령 ‘탄핵의 문’ 열리나...정치권 초당적 추진 움직임

20여개 사유 들어 요구서 준비

여론 압박에 학계도 지지 가세

브라질 정치권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초당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좌파·중도좌파 정당은 물론 범여권에서 발을 뻗 정당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탄핵 요구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이들 정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 작성을 위해 20여 가지 사유를 정리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군 인사권 전횡, 연방경찰 수사 개입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상원의 코로나19 국정조사와 탄핵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집권 2년 반 만인 지금까지 하원에 제출된 탄핵 요구서는 121건에 달한다. 브라질 헌법상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여부는 하원 의장의 결정에 달했다.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에서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342명) 이상,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중 3분의 2(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1950년 헌법에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조항이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과 2016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등 두 차례 탄핵이 이뤄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아르투르 리라 하원의



20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 코로나19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장미꽃들이 꽂혀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포옹하고 있다. 전날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장은 그동안 탄핵 추진 여건이 되지 않는다거나 탄핵 요구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을 미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고 3차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라 의장은 지난달 말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탄핵은 하원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엔 “모든 것은 헌법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이 계속되면 탄핵 추진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학계에서도 보우소나루 탄핵을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대학 하파에우마페이 교수(법학)는 일간 폴라 지 상파울루와 인터뷰를 통해 “보우소나루 탄핵 추진을 주저할수록 법과 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베이조스를 지구로 못 돌아오게 하자”

내달 우주여행 앞두고

5만명 서명한 청원 등장

세계 최고의 부호로 다음 달 우주여행에 나서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청원에 약 5만명이 서명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에 이런 내용의 청원 2건이 올라왔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조스 CEO는 다음 달 20일 자신이 설립한 우주탐사 업체 블루오리진의 첫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에 나선다. 이 회사의 첫 유인 우주비행에 남동생 마크와 함께 직접 참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0일 우주로 간 베이조스가 지구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청원 2건이 체인지닷오르그에 올라왔

다. 그중 하나는 ‘제프 베이조스가 지구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지금까지 3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에는 “억만장자는 지구에 또는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후자를 결정한다면 그들은 거기 머물러야 한다”는 논거가 담렸다.

서명한 사람들은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거나 “지구는 제프나 빌(게이츠), 일론(머스크), 그리고 다른 억만장자 같은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며 청원을 지지했다.

‘제프 베이조스의 지구 재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또 다른 청원에도 1만9000여명이 서명했다. 이 서명의 제안자는 베이조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작성한 사악한 지배자”라며 “인류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렸다”고 썼다. 두 청원은 각각 3만5000명과 2만5000명의 서명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집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

지리산, 시세 30억, 토지

▶ 임야 / 전 / 답 등 16,513㎡(구 5,000P), 계획관리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대출 18억 6,000만원 승계 가능자

문의 . 010-3605-5000